

거대기업의 결합과 경쟁정책

최근 들어 전략적 동기에 기초를 두거나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세계적인 거대기업간의 합병(mega-merger)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합대상이 급속도로 다국적화 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 합병에 대한 각국의 경쟁당국간의 협조체제도 확대되고 있으며, 거대기업 결합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보면 합병의 대상이 되는 기업자산이 세계적인 거대규모 내지 최상위급 기업이 많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최근에 발생한 세계적인 거대기업의 결합사건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내용 및 특징을 정리해 본 것이다(본 자료는 일본 공정취인협회 발간 공정취인지 8월호에 게재된 「거대기업의 결합과 경쟁정책」에서 발췌 및 평석한 것임).

1. 항공기 제조

항공산업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잉과 맥도넬 더글라스의 합병, 록히드 마틴사와 노드롭 그루만사의 합병을 꼽을 수 있는데, 사실상 동 사례는 합병이라기보다 각각 보잉과 록히드에 의한 흡수통합이라고 함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보잉과 맥도넬 더글라스의 합병은 '97년 7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먼저 승인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당국간에 합의를 거듭한 끝에 유럽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타결되었다. 합병 당시 미국이 민간항공기 산업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위 유지의 필요성과 합병이 미국의 무역수지의 개선과 근로자의 고용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FTC 측은 합병 승인이 순전히 반트러스트법과 경쟁정책에 기초한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FTC 측은 경쟁원리에 위배되더라도 무역에서 이익이 생겨 합병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맥도넬 더글라스 측이 과거 수십 년간 생산라인, 인프라, 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생산라인이 노후화되어 신기술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 기술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반트러스트법 저촉 여부에 대한 비판을 모면할 수 있었다.

미국 방위·항공우주산업 굴지의 록히드 마틴사(매릴랜드 소재)사가 노드롭사(LA 소재)를 116억 달러를 주고 매수하려던 계획은 미 법무부와 국방부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한 이 합병계획은 고도의 과점시장 내부의 합병이고 국가 안전에 극히 중요한 부문이라는 점과 경쟁과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군수품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98년 7월 백지화되었다.

2. 자동차

'98년 7월 유럽위원회는 독일의 다임러 벤츠사를 미국 자동차업계 3위인 크라이슬러사가 380억 달러에 사들인 계획을 승인하였다. 1998년 7월 22일 구주위원회는 유럽의 각 가맹국의 어떤 경우든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이고 고급차인 경우 10% 이상이나 입차의 경합부분이 적고 MBW나 GM 등 경쟁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하였다. 합병 당사자들은 승용차의 교역이 지리적 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석유

석유산업의 합병 사례로는 영국의 BP와 미국의 Amoco의 합병, 미국 최대의 Exxon과 2위의 Mobil의 합병, BP와 Amoco에 의한 어틀랜틱 리치필드(ARCO)의 합병계획 등이 있다. BP/Amoco 합병의 경우 '98년 12월 유럽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았지만 FTC측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몇가지 조건을 붙여 전체회의의 심의에 넘겼다. 이밖에 나머지 두건의 합병계획은 현재 심의가 진행중에 있다.

4. 전기통신 및 방송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재편이 행하여지고 있다. 거대합병에 속하는 BT와 MCI의 합병에 대해 미 법무부와 유럽위원회는 '96년에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특히 같은 해에 전기통신법을 제정한 미국에서는 합병계획과 경쟁에 관한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의 거대합병 사례로 World Com/MCI의 합병이 있다.

세계적인 장거리 국제통신회사인 월드컴(미시시피주 소재)이 미국내 2위이고 세계 5위인 장거리 통신회사 MCI(워싱턴 D.C. 소재)를 440억 달러로 사들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합병 후의 회사는 인터넷의 기간회선사업에서 40~60%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고 보도되었다(유럽위원회는 50%를 주장). 합병에 앞서 MCI는 '98년 7월 인터넷 사업부문 전체를 영국의 멀티미디어 회사인 케이블 앤드 와일리스(C&W)에 17억5천만 달러로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합병 사상 최대의 기업분할(divestiture)로 지칭되는 이 매각결정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금융

금융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의 결합은 직접적인 경쟁정책에 따라 성립되기보다는 은행지주회사법에 의거한 규제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어 광의로는 경쟁정

책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 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Citicorp/Travelers의 결합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종합금융지주회사인 Travelers가 미국 2위의 은행지주회사인 Citicorp를 726억 달러에 매수한다는 것이 결합 내용이다.

이 건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심사한 결과 '98년 9월 합병은 은행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를 것과 미 의회에서 심의중인 금융제도개혁이 실현되기까지 원칙적으로 2년간, 최장 5년 이내에 Travelers 최대의 수익부문인 보험보증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였다.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유럽위원회는 이 계획을 무조건 승인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 Travelers는 투자은행업무, Citicorp는 상업은행업무에 수행하지 않고 점유율도 15% 미만인데다 두 회사가 결합하고 있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도 타사와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승인 이유였다.

6. 미국 Cardinal Health / Bergen Brunswing, McKesson / Amerisowrc Health

미국 대형약품도매업자 4사중 2사씩 2건의 기업결합 계획이다. 제2위의 Cardinal Health가 제3위의 Bergen Brunswing을 취득하고 제1위의 McKesson이 제4위의 Amerisowrc Health를 합병하는 것으로 각각 자산총액 22억5천만불과 28억불의 대형 합병이다. 4사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80%로서, 콜럼비아연방재판에서의 중지명령으로 동 합병계획은 단념하였다.

7. KPMG / Ernst & Young

세계의 6개 회계사무소 중 제2위의 KPMG 비토 마워과 제3위의 Ernst & Young과의 결합은 미국, 구주, 캐나다의 경쟁당국의 심사로 1998년 2월 13일 단념되었으며, 세계 제4위의 Pricewaterhouse와 제6위의 Coopers & Lybrand의 합병은 세계 최대의 회계사무소를 만드는 결합으로서 미 법무부에서 동년 3월 12일 조사를 끝낸 상태이다.

8. 결론

거대한 기업결합 물결은 경쟁의 글로벌화, 기술혁신, 규제완화나 전략력 제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미국 반트러스트국장과 비도후스키 FTC 위원장의 의회증언). 이러한 요인은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도 있어 이를 적극 용인하지만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경우는 강력히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반트러스트법상의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규모가 아닌 당해합병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제적 거대기업결합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은 심사과정에서 구미경쟁당국이 적극적인 정보교환 등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합내용과 경쟁정책상의 대응 모두가 글로벌화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